



牛乳의 需給調節 方向

建國大學校 畜産大學교수
柳 濟 炫

1. 머리말

牛乳의 需給調節의 基本 方向은 온 國民에게 良質의 牛乳를 充分히 供給하고, 酪農家의 安定된 所得을 保障하며 아울러 乳加工場의 持續的인 發展을 圖謀하는데 主眼點을 두어야 한다. 円滑하고 보다 効率的으로 牛乳의 需給調節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計劃生産制度를 導入하고 그 對策을 推進, 施行해야만이 酪農이 自生하여 定着되리라고 確信한다.

2. 計劃生産 目標量의 設定

1995년에는 原乳의 增加率을 17.4%로 豫測할 때 需要增加率은 6.9%로 現在보다 훨씬 떨어져 原乳는 供給過剩으로 粉乳같은 形態로 累積될 어두운 展望이다(서울우유, 1985. 原乳計劃生産 및 流通에 관한 研究, p. 83), 行政當局이나 어떠한 機構가 主導가 되어 原乳生産供給과 乳加工場에서 所要되는 需要와의 均衡을 바로 잡아 주어야만이 된다. 이대로 放置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過剩原乳로 인해 酪農가와 乳加工場이 自減하는 地境에 와서 處方을 내린다면 무슨 所用이 있겠는가. 酪農이 始作된 初期

에는 生産된 牛乳를 전부 販賣치 못해 어떤 때는 3일에 한번, 심지어는 격일로 우유를 自家消費케한 때도 있었다. 시유가 판매되지 않으면 原乳를 받을 수가 없는 즉, 原乳의 剩餘는 곧 酪農家の 納乳禁止로 直結되었었다(우유수급과 낙농인의 자세, 1986. 김 남용, 牛乳, p. 8). 이웃 日本은 수년전부터 牛乳計劃生産制를 運用하여 좋은 實效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全國廣域圈인 市道別로 原乳計劃生産量을 設定하고 一括하여 需給調節, 指導, 規制하여 酪農을 育成해야 한다.

한편으로 前年度의 牛乳, 乳製品의 販賣實積에 따라 各 乳加工場에서 必要한 原乳量을 需給調節機構에 提出하면 過剩되거나 不足할때 調節供給시켜 安定的 發展을 助成해 주어야 한다.

현재 乳業體가 牛乳의 非需期에 剩餘原乳로 인한 在庫粉乳를 안고 狐軍奮鬪하고 있다. 여기에 行政當局의 所屬二元化로 즉, 原乳生産에서 受乳까지는 農水産部의 指導監督을 받고 製品生産과 流通販賣까지는 保社部의 管轄로 두 시 어머니를 모시다보니 더욱 어려움이 있다. 또한 酪農家の 自律的인 協力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3. 計劃生産制度의 推進對策

1) 需給調節機構의 設置

全國의 原乳의 計劃生産에 의한 供給可能量과 各 乳業體의 處理能力에 立脚한 原乳의 所要量을 一括 統合하여 調節할 수 있는 常設機構를 設置, 運用해야 된다. 그 機構는 어떤 形態든 있어야 한다. 한 例로 農水産部의 流通課 산하에 畜協中央會이든 또는 專門의 機關으로 일을 하고 있는 乳加工協會를 強化해서라도 實現시켜야 한다.

2) 行政의 一元化

牛乳라는 食品은 다른 食品과 달리 그 特性이 牧場에서, 原乳의 生産에서부터 乳加工場에서 受乳, 冷却, 貯藏, 處理加工, 冷蔵, 運搬, 販賣, 消費者에 이르기까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넓게 볼 때 어느 하나는 別途로 取扱할 수 없는 것이 牛乳다. 현재(昨年 7月 1日 法이 바뀌어) 原乳의 生産과 受乳까지는 農水産部가 責任을 떠 맡고 工場의 生産에서 消費者까지는 保社部가 指導하고 있다. 앞으로 過剩되는 原乳는 누가 調節할 것이며 아니 製品化된 在庫粉乳에 대해서는 保社部는 어떻게 對處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좋은 일만 있으면 問題는 없겠지만 어려운 狀況에 처하면 내 일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놓는 식의 行政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피해는 유업체요, 결국은 낙농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部處에서 牛乳의 計劃生産制度의 行政의 指導, 監督을 해야만이 허덕이는 酪農이 제대로 定着되리라고 믿는다. 先進 英國이 1933년에 milk marketing Board(MMB)를 만들어 현재도 그 MMB에서 原乳의 生産에 관한 모든 것(사양기술지도, 정액, 인공수정, 질병치료, 목초종자 등)과 원유검사기준, 공장생산기술공정, 제품분석, 유통판매, 소비자의 소리까지 一元化하여 指導, 監督이라기 보다는 써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의 酪農이 이제 뿌리내려 定着하려는 마당에 行政의

一元化로 育成, 發展되도록 指導, 監督할 수 있는 斷案이 내려져야 되겠다.

3) 販賣調節基金의 積立

얼마전까지만해도 畜産振興基金이라해서 原乳kg當 6원씩 積立했던 것으로 안다. 현재는 控際하지 않고 乳代에 그대로 牧場에 支拂한다고 하는데 酪農家가 앞장서서 金額의 多少는 모르지만 復活시켜야만 한다. 過剩原乳의 需給調節에는 물론이지만 市乳나 乳製品의 販賣促進을 위해 消費擴大나 弘報 등에 有効適切하게 利用한다면 酪農家 自身을 돕고 적은 金額으로 큰 利益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꼭 原乳生産量에 따라 基金을 積立하여 酪農家 自身을 保護, 育成해야 한다.

4) 類似製品의 乳製品 強化

豆乳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消費者들은 많은 量의 牛乳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소비자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 보아도, 양케이트를 돌려서 응답을 모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牛乳를 넣지 않는 製品은 品目許可를 내주지 않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乳」자를 빼든가 行政的으로 強力한 規制를 해야 한다.

5) 乳製品의 輸入抑制

類似製品의 製造業體, 제과, 제빵업체, 송아지용 대용유업체, 육아용 조제분유업체 등에서 상당량의 외국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선별하여 억제시켜야 한다.

6) 剩餘原乳의 加工時 補助金 支給

剩餘原乳를 粉乳化할 때에는 積立金에서 補助金을 支給하여 乳業體가 損害되는 일이 없도록 活用해야 한다. 현재도 또 앞으로도 積滯된 原乳를 어떻게 調節해야겠다는 代案도 없이 粉乳로 쌓아 놓고 乳業體가 苦惱하고 있는 實情이 아닌가. 酪農家들도 協力해야 한다. 만일 乳業體가 原乳代를 支拂할 能力이 없을 때는 어떻

게 하겠는가?酪農家들도 自求策을 講究치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酪農家들도 어떻게 하면 最善의 길이라는 것쯤은 擇할 높은 水準에 있다고 믿는다.

7) 割當量 超過原乳에 페널티

牧場과 乳業體間에 每年 納乳量契約을 우선 締結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즉, 牧場의 計劃生産에 따라 原乳의 割當量限度內에서 納乳되어야만 되겠다. 分娩豫定頭數에 따른 原乳의 搾乳量을 모를 정도의 牧場主들은 없으리라고 본다. 만일 割當量보다 훨씬 超過時에는 積立金을 더 控除한다든가 低能力牛의 淘汰 등으로 쉽게 解決할 수 있으리라 본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젖소를 더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에서 飼料, 草地 특히 原乳의 需給上 許可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얼마전 미국에서 공부하는 낙농학도로부터 들었다. 우리도 各 牧場의 安定을 꾀하기 위해서는 酪農家들이 앞장서서 計劃生産制度에 積極 參與해야만이 된다.

8) 송아지 原乳哺乳

剩餘牛乳에 대해 牧場에서 一部 自家消費하여 함께 解消方法을 찾자. 대개의 牧場에서는 값이 적게 먹히는 대용분유를 송아지에 哺乳하고 있는데 앞으로 牧場 自身이 生存하기 위해서 代用乳 대신 原乳를 使用해야만 되겠다.

9) 在庫粉乳의 牧場에 配分

剩餘原乳의 臨時 處理方法으로 販賣對策이 不確實한 狀態에서 粉乳를 만들고 있다. 乳業體가 在庫로 財政的 壓迫을 받고 있을 때 各 牧場에서는 그 一部를 負擔한다면 牧場과 工場이 共存, 發展되리라 믿는다.

10) 在庫粉乳의 代用乳 製造

酪農家들이 積立한 基金 중에서 在庫粉乳로 代用乳를 製造하여 各 牧場에 配分한다면 部分的으로 累積原乳의 解決策이 될 것이다.

11) 치즈生産의 積極推進

乳製品 중 女王格이요 最高의 食品인 치즈生産을 推進하여 原乳消費를 擴大하고, 치즈生産工場에는 積立基金 중에서 일부 補助하여 原價를 낮추어 消費者에게 값싸게 供給되도록 해야 한다.

12) 民間財原에 의한 學校, 軍給食의 強化

장차 이나라의 기둥이 될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나라를 지키는 軍人에게 牛乳를 값싸게 供給하자는데 異議를 提起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企業은 앞으로 健康하고 명석한 頭腦를 必要로 할 것이다. 지금부터 投資할 用意는 없는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國家가 安寧한 가운데 企業도 安心하고 成長할 수 있다. 나라를 不徹晝夜 지키는 軍人에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는가? 各 部隊와 企業間에 結緣시켜 牛乳를 給食하는 길만이 강한 軍人을 만들 수 있다고 確信한다.

4. 맺는말

酪農振興政策을 편지 4半世期, 이제 酪農이 겨우 뿌리 내려 자라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간에 모든 사람들이 精誠을 다했고 일부 施行 錯誤도 있었으나 큰 나무로 자라고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려는 한 過程이라고 본다.

우리 모두가 온갖 지혜를 짜 내서 酪農을 키워 잘 사는 나라, 國民이 되어보지 않겠는가. 이른 새벽부터 소똥 치고 사료 주고 젓짜며 하루도 쉴사이 없이 땀 흘리는 酪農家들의 安定된 所得增大를 꾀하고, 乳加工場에서 고무장화 신고 일하며 防寒服차림으로 아이스크림 冷凍庫에서 일하는 勤勞者들의 厚生福祉를 改善해 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어김없이 配達해 주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利益을 같이하는 길이라면 위에서 列舉한 計劃生産制를 強力히 推進하여 實踐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